

## 낙스(NAKS) 소식

### 1. 주미대사관 이수혁 주미대사와의 환담회

20 대 집행부 임원진(오준석 이사장, 김선미 총회장, 추성희, 송지은, 이경애 세 명의 부회장, 김경희 사무총장 등)은 지난 9월 14일 주미대사관을 방문해 이수혁 주미대사와 환담을 하였다. 이수혁 주미대사관은 한류 문화에 힘입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시대를 맞은 낙스의 중추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온라인 수업 운영 및 온라인 교사 연수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 확장하고 학생과 교사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김총회장은 "낙스 40주년(2021년)을 맞이하여 낙스가 배출한 보다 많은 코리언 어메리칸들이 미주류 사회에 진출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언어와 역사문화 교육을 통해 정체성 확립은 물론 소중한 인적 자원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수혁 주미대사(오른쪽 네번째)가 김선미 총회장(오른쪽 세번째)을 비롯한 신임 임원진과 환담 후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2. 20대 인수인계식 및 시무식



시무식 후에 (앞줄 왼쪽 세번째부터 차례대로) 김선미 총회장, 오준석 이사장, 오정선미 19대 총회장, 한상신 교육관 등이 신임 임원들,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9월 15일 메릴랜드 록빌 코트야드 호텔에서 '20대 집행부 인수인계식 및 시무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오준석 이사장, 19대 오정선미 총회장과 임원진, 20대 김선미 신임총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진, 워싱턴 지역협의회 김선화 회장, 워싱턴 지역협의회 이기훈 이사장 및 낙스 이사와 낙스 자문 이사, 한상신 교육관과 강경탁 워싱턴교육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그 동안의 사업성과를 격려하며, 20대 임원진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 주었다.

코로나사태로 인해 현장 참석이 어려운 임원들은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참여하여 예년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참여방식을 선보이기도 하였다. 오준석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내년이면 40주년을 맞이하는 낙스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250만 미주 교포의 한국어, 역사, 문화 교육을 통해 2세의 정체성 함양에 기여하는 낙스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감사보고, 업무소개 및 문서전달, 인수인계 합의서 서명 등의 모든 인수인계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되었다.



위 사진은 9월 1일 20대 집행부 제1차 온라인 화상 회의 모습

오정선미 전임총회장은 격려사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20 대 집행부의 발전을 응원하며 축복하였고, 한상신 주미대사관 교육관은 축사에서 “차세대들이 미국 내에서 코리언 어메리칸으로서의 뿌리 의식과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진출하는데 닉스가 그 터전을 마련하고, 미래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하였다. 더불어 새로운 교육적인 시도와 노력으로 미래 한국문화교육 준비를 응원하고,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움과 지원을 약속하였다.

또한, 김총회장(디트로이트 세종학교 교장)은 취임사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적인 상황과 변수를 안고 시작하는 20 대의 출발이 그동안의 성과와 더불어, 한국학교 정체성 교육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기회로 삼고 싶다”고 하였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모든 임원진이 한마음 한뜻으로 상황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내년 40 주년 행사 준비를 하면서 닉스의 발전과 온전한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결의를 다졌다.

### 3.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와 양해각서(MOU)체결

우리 나스는 한국문화 및 정체성 교육의 연장 선상의 일환으로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긴밀한 연구 개발 협력과 사업 경험 및 네트워크 교류를 통해 두 기관의 효과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정선미 19대 총회장, 김선미 총회장, 오준석 이사장의 모습